

## 건축의 내재적 컨텍스트

### Internal Contexts of Architecture

건축사 / 유태용(테제건축)

대담자 / 김봉렬(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일시 / 2001년 1월 11일 오전 10시

장소 / 테제건축



대담광경 (왼쪽:김봉렬, 오른쪽:유태용)

**김봉렬** 몇 년 전까지 전통한옥 보존지 구였던 가회동은 서울의 몇 안 되는 역사환경 지역이면서, 건축가들의 끊임없는 관심을 환기시켜온 곳입니다. 여기에 최근 유태용소장께서 새로운 주택과 갤러리를 설계하셨는데, 서미갤러리에 대해 건축주가 요구했던 바와 기존의 건축적 상황, 그리고 계획 당시의 주안점 등 작업 경위를 설명해 주시지요.

**유태용** 서미갤러리의 건축주와는 창조 건축에 있을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 당시는 IMF 관리체제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을 때였고, 사무실 기능을 포함한 주택 건물을 가장 빨리 지을 수 있는 경제적인 설계를 주문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3개월, 공사비는 평당 300만원 정도로 맞추기를 원했습니다.

**김봉렬** 그런 최저 조건으로 인한 건축주와의 마찰은 없었습니까. 실제 공사비는 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유태용** 마찰은 거의 없었습니다. IMF시절을 지나면서 건축주는 더 개선된 건축환경을 원하게 되었고, 가회동이란 지역의 장소성과 주변의 경복궁 일대의 화랑가를 고려하게 되어 좀 더 예산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지하층은 공기 때문에 설계하지 않았고, 철골조에 노출 시멘트 블록 마감으로 할 생각이었습니다. 몇년전 서울예술대학 프로젝트를 작업하면서 새로 개발했던 두 가지 색이 혼합된 노출 시멘트 블록을(기존 노출 시멘트 블록과 색상, 단면이 다르고 가격도 일반 벽돌보다 저렴)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 후 설계 진행과정에서 구청 협의 중에 도시미관 심의지침사

항 적용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의 지침 내용 중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경사지붕의 적용이었습니다. 건축주가 평지붕 건물을 선호한 것도 이유지만, 10:3의 기울기의 경사지붕을 'c' 형태의 건물에 요구하는 것이 더욱 힘든 문제여서 한옥을 직접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성북동의 한 프로젝트에서 한옥과 현대적인 건물을 직접 병립하여 설계한 적이 있었고, 그 결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로변에 한옥과 병행된 전벽돌 벽을 배치하고, 'c' 자 중정형태의 안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또다른 설계의 관점은 후에 필지를 구입하여 확장했을때의 고려사항입니다. 도로변에 인접한 그 필지와 후면의 한옥을 포함한 작은 규모의 마스터 플랜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봉렬** 이 건축물은 비록 '갤러리'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주된 용도는 2층의 주택과 1층의 사무실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용도상의 정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태용** 처음에는 '갤러리'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2층은 주택이고 1층은 일하는 작업실이 있으면 좋겠다는 정도였습니다. 후에 건축주가 갤러리의 기능을 포함시켰습니다. 대지를 살펴보면 뒷집은 한옥이고 옆은 축대, 앞에는 조그만 과일가게였는데, 가회동 주변의 외부 컨텍스트에 반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재적 컨텍스트(internal context)를 만들어 가고 싶었습니다. 이 목표는 저의 건축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재적 컨텍스트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과는 의미가 다른데,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사회적 맥락에서의 문제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면, 내재적 컨텍스트는 정서적 측면이 많다고 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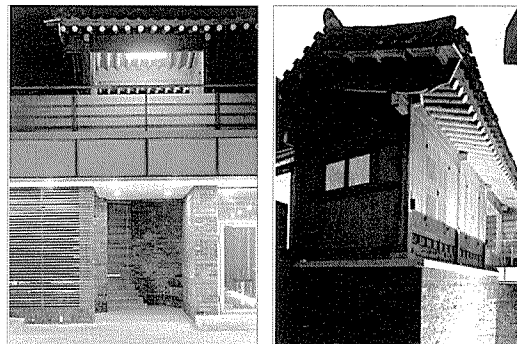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뭔가를 창출해내어 구성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봉렬\_\_\_이 건물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운데 하나는 사이트가 한옥지구라는 점과, 거기에 맞춰 의도를 하셨든 아니든, 전면에 한옥을 등장시키고 기존 도시 한옥이 가졌던 중정 공간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들일 겁니다. 대지를 처음 접하고 가졌던 초기의 이미지랄까,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지요.

유태용\_\_\_ 처음부터 한옥을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옆에 높은 축대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원남동에서 창덕궁으로 넘어가는 길 기억나시죠. 종묘 쪽은 지반이 높기 때문에 석축이 아주 높게 쌓여 있고 창경궁 쪽은 담이 낮게 쌓여 있는데, 그 높은 석축이나 담을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 거리를 지나면 옛날에 그 길을 걸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휴먼 스케일을 얘기할 때 낮고 다정하고 친근한 것을 말하는데, 어떨 땐 이런 침묵의 석축 같은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결국 대지를 감싸는 석축과 담에는 어떤 건축적 장치를 도입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김봉렬\_\_\_ 한옥지구라는 것에 대한 중압감, 건축적 전통에 대한 해석에 대한 갈등은 별로 없으셨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유태용\_\_\_ 한옥지구에 대한 중압감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근처를 다녔던 기억들은 한옥지구라는 환경이 중압감보다는 오히려 더 편한 작업 조건



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봉렬\_\_\_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복합 용도와 대조적 재료의 표현 등, 단순한 건물은 아닙니다. 결국 중정이 이 건물의 datum이 되어 다양한 용도와 형태를 종합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도시한옥의 중정 공간을 재현하겠다는 의도였다면 오히려 어색해진 것이 아닌가 했는데, 의식을 안하셨더니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어떤 건축적 타입으로서 하나의 중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질서를 만들기 위한 인위적 기호로서 만들어진 중정인데, 기능이나 공간적 성격이 모호하게 보입니다. 내부와 그렇게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 있지 않고, 오히려 중정 자체가 하나의 비어있는 오브제가 되어 대상으로 접근이 되는 것 같은데요.

유태용\_\_\_ 흔히들 공공성을 위협하는 상업적인 건물의 폭력성을 많이 비판하지만, 개념에 의한 폭력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전통 건축의 현재성'이나 '중정의 의미' 등의 건축적 개념 보다, '이 건물에 어떤 충만한 기운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이 사람의 가족관계나 기억들이 투영되는 정서가 다양하게 정리되기를 바란다' -그런 생각으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개념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건축적 개념이 디자인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만약 그러한 개념이 디자인 행위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실제로 설계작업에서 중정을 계획하지 않는다면, 일자 건물이나 L자 건물 뒤쪽에 마당을 내놓는 경우 정도밖에 남는 가능성이 없겠지요. 현실적으로 모든 외부적 요소들을 받아들이면서 좋은 점을 흡수하고, 나쁜 점을 보완하려다 나타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중정의 필요



성이 있다면 옆에 두 개의 주택을 나중에 구입하여 확장하였을 때 비어있는 중심적 공간의 역할로서일 것입니다. 더욱이 한옥이, 특히 1층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2층에 세워질 때 중정과 같은 비어있는 공간 없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김봉렬** 직설적인 한옥의 형태를 일부라도 사용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것이 현재 우리 건축계의 분위기입니다. 서미갤러리에서 결과적으로 한옥이 재현되었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겁니다. 우선은 한옥을 거리낌없이 재현한 용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시각이겠지만, 대상으로서 이 건물을 띄우려고 한 어떤 전략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같은 현상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태용** 한국에서 사는 건축가에게 한국 성이란 풀지 못한 숙제 같이 되어있죠. 사실, 이 문제를 자유롭게 넘나들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팀은 그래요, '자꾸 한옥이라고 말하지 말아달라' 는 거지요. 결국 한옥이라 구분해서 말하는 그 자체가 죽어있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 아니냐는 거죠. 적당한 표현이 없는데,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실제로 지어졌다면, 전략적이든 개념적이든 간에, 보기 괜찮고 사용하기 괜찮으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옥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선 측면 1칸, 정면 3칸이면 이게 사당이지, 주택은 아니라고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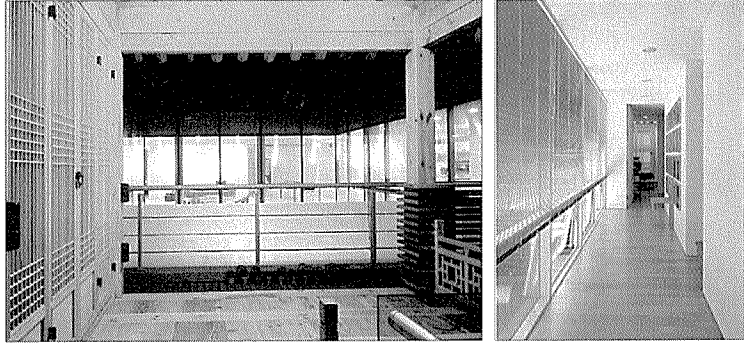
**김봉렬**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밖에서도 한옥의 형태가 강하게 인식되지만, 특히 중정 쪽에서 봤을 때, 한옥이 하나의 대상물(object)로 부각되는데, 전

통적인 주택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거든요. 도시한옥과 상관없다고는 하셨지만, 주변에 있는 한옥들의 질서를 보면 형태가 부각되는게 아니라 스크린으로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건축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공간, 마당을 만들기 위한 장치로서 벽면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서미갤러리는 기회동 한옥군에 대해 다분히 표현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유태용** 건축가가 도시적으로 해석하는 한옥이란 일반적으로 도심 한옥과 한옥 사이의 조그만 길이라든가, 한옥 안의 마당, 담 너머 보이는 옆집의 한옥, 질서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만약 여기다가 한옥을 그런 식으로 구현했으면, 오히려 한옥을 더 고립시킬 수 있다고 봤어요. 전면에 한옥을 내세운 것은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건축주가 갖고 싶어하는 자기 건물의 성격은 분명하게 있었고, 이러한 건축주가 원하는 건물과의 사이에 어떤 전위적 장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옥의 외부적 표현 보다는 내부에서 보는 한옥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할 지도 몰라요. 내부에 유리를 단순하게 사용한 것도 사실은 주변을 배경화 하는, 제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였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한옥 모습이라든가, 내부에서 보는 측백나무 등과의 관계를 맺어 주고 싶었습니다.

**김봉렬** 베이스 패널을 뒤집어서 사용하신 점 등을 보면 재료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유태용**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디자인 실장이 베이스패널 sample 단면을 가지고 집에 가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부인이 뒷면이 더 좋다고 하더라는 거에



요. 왜냐하면 부인은 앞, 뒷면을 모르니까. 실제로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해결된 거지요. 그 색상이나 톤 자체는 건축주가 좋아해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재료나 공법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꼭 관심 있게 보는 편이에요. 건축가들이 이런 면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재료산업은 발전이 없고, 경제적이고 좋은 재료들을 개발할 수 없겠지요. 그런 면에서 자주 사용하는 재료들을 새롭게 보는 것도 그 중 하나의 방법이지요.

**김봉렬** 수공예적인 한옥의 재료와 커튼 월 시스템 같은 공업적인 재료를 중정에서 동시에 병치 하셨는데, 한옥지붕과 본체가 만나는 부분, 지붕의 경사에 접합되는 부분 등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겁니다. 다른 합리적인 분리방법들을 제쳐두고 굳이 이런 방법을 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유태용** 우선 중정이라는 것 자체를 구성하는 재료는 기능적인 것만 낚시고, 침묵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한옥을 연구하시는 분이 한옥은 정말 하이테크적인 건축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하이테크의 근본은 제가 보기에 장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주변에서 하이테크라 한다면, 그건 재료나 기계적 표현을 말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디테일이나, 구성하는 방식에 정교한 장인적 속성이 배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지어놓고 보니까, 한옥이라는 것 자체의 시각적이고 정서적인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실제로 한옥이 너무 강한 오브제로 나타난 거예요. 그걸 보고 새삼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김봉렬** 내부를 백색의 모노톤으로 마감 하셨는데, 무난하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밖에서 나타나는 재료의 혼용들, 다양한 재료들이 병치되고 있는 상황을 내부에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미니멀한 경향도 역시 건축주의 요구입니까?

**유태용** 그건 아니었어요. 건축주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벽면을 많이 해달라는 요구 사항은 있었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별로 고심하지 않았습니다. 내부공간의 재료에 외부재료가 굳이 스며들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김봉렬** 내부 동선의 순화적 처리라든가 내부에 차경되는 외부의 수법들에서 동시대적 경향을 읽는다면, 내부의 구성을 끌고 나가는 톤은 전시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밖에서 보여주셨던 병치의 수법들이 오피스나 갤러리나 주택 안에서 특성화되어 나타났다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중정은 아늑하다기 보다는 지배적인 공간이 아닌가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데, 아마도 커튼월로 조작된 완벽한 인공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다 한옥을 정점의 강조점으로 부각시켜서, 아까 침묵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서미갤러리가 가지고 있는 장소적 특성이나 프로그램이 침묵 등으로 상징화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태용** 사실은 이 중정을 뒤에 있는 한옥하고 연결할 생각이었습니다. 나중에 앞의 두 집을 구입해서, 두 집과 중정이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다른 레이어들이 생기는 걸 구상했어요. 그래서 입구쪽이 반외부공간이 되고 들어오면 한옥이 있고, 낮은 측벽에 나무가 있고 그런



관계성을 가지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나중에 뒷 집을 구입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고, 실용적으로 쓰자는 쪽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건축주에게 중정에 나무 한 그루라도 심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중정을 건너가는 길만 남기고 물로 다 채웠으면 하였습니다. 저 역시 그 의견에 펍 공감을 했지만 보류하자고 했지요. 지금도 그 시도의 흔적이 있는데, 중정 주변 벽 밑에 간접 조명이 있고, 배수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건축주는 이 건물에서의 중정을 비어있는 조각품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중정을 만들어야 하고 또 그걸 구성해 주는 것이 한옥과 커튼 월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도시한옥에서의 중정과는 다른 거죠. 여기서 중정이라는 것이 안방, 건넌방에 열려있고, 장독대도 있고, 거기서 빨래도 하는 이런 개념의 중정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오히려 1층에 자리잡은 갤러리에 속해있는 스페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엄격히 말하면 주택에서는 그걸 사용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결론론적이지만 중정이 비어있음으로써 외부의 공간과 내부의 시선 모두 포용하는 충만한 장소가 된 것 같습니다.

**김봉렬** 이 작품에서 조금 벗어나는 말씀을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여태까지 하신 말씀이나 발표하신 글들을 보면 작업을 하시는 태도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경제신문사옥이 하이테크적인 흉내를 내는 형태가 아니라고 부정하셨고, 서미갤러리는 자칫 잘못하면 8,90년대 포스트모더니즘 논쟁 속에 휘말릴 수 있는 요소를 다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적 경향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단지, '프로젝트 진행상 이렇게 된 것이다, 혹은 컨텍스트나 건축주의 뜻에 의한 결과다'라는 말씀들은 기존의 유명 건축가들

테서는 보기 드문, 소박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건축가의 두 가지 자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충실한 서비스맨-이주 전문적인 실력을 가졌지만 건축주나 땅이 요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러다 보면 매 작품마다 경향이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서비스맨으로서의 태도하고, 또 어떤 사항이든, 어떤 프로젝트든, 어떤 건축주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아티스트로서, 전위적 실험가로서의 건축가의 태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유소장님은 전자에 속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게 보아도 되나요?

**유태용** \_\_\_\_\_군이 말한다면 저는 프로젝트와 건축주의 요구에 충실한 작업가입니다. 나는 제도판에서 일하다 죽겠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빨리 건축을 그만두고 훨훨 날아다니면서 살 수 있나, 하는 게 얼마 남지 않은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저에게도 건축이 큰 시련으로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별 고민 없이 졸업, 유학, 실무라는 절차를 밟고 있던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던 프로젝트가 있었지요. 서울예술대학 프로젝트인데, 한국성에 대한 얘기였어요. 사실 한국성이란 명어를 안고 살아가는 건축가가 좀 더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을까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 모순적인 것을 수용할 방법이 없겠냐는 것이지요. 건축의 사회적인 역할, 예를 들면 근대주의처럼 건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뤄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오히려 저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는 것 같이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목격자 진술에서처럼 어떻게 보면 건축은 몽타주 작업을 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얘기하자면, 어떤 불연속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불연속적인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서울예술대학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스스



로의 문제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3년간 진통을 겪었는데, 내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내린 결론이 딱 하나입니다.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지요. 3년간을 제 몸에 남아있는 한국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건축적인 한국성에 대해 고민했던 시기를 보내고 나니, 그 이후로는 작업할 때 한옥이 되든, 스테인레스 스틸이 되든, 뭐가 되든 별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김봉렬** 유소장님께서 부정하실 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독특한 캐리어와 위상을 갖고 계시거든요. 30대나 5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40대의 건축가가 드문 편입니다. 또 제대로 활동하는 40대 이상의 건축가들을 보면 초기부터 독립 아틀리에를 운영하면서 성장해 온 경우가 많은데 소장님은 창조라는 대조직에서 활동하시다가, 과감하게 청산하시고 소위 '구멍가게'를 차리신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또, 지금 말씀 중에 담론을 거부하신다고 하셨지만, 그 말씀들이 요즘 거론되고 있는 '약한 건축'이라든가 '일상성의 건축'이라는 그런 담론들이거든요. 강력한 어떤 하나의 이념이나 컨셉을 거부하고 좀 소프트하고 따뜻하고, 인간 본위적인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이런 것들은 충분히 후배들이나, 건축계에 당당하게 말씀해주셔서 다른 방향의 건축도 더 적극적으로 사회화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국내 건축계의 돌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이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간직하실 연배는 아니시라는 거죠. 본인은 개인 작업에 충실하고 또 다른 이상이 있으셔서 빨리 건축을 떠나서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지 모르겠는데,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유태용** 대조직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작업했어요. 별 차이는 없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작업 자체

는 큰 규모나 작은 규모나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대조직 설계회사가 외국 설계사의 국내 허가방이라는 매도를 당하기도 하고, 으레 상업적 건축을 한다고 비판받는데,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건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건축주를 건축의 세계로 이끄는 작업, 다시 말하면 (부단한 노력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노동조합서부터 최고경영자까지 모든 사람을 다 설득하는) 그것도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그리고 대형 사무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틀리에 건축가들도 어떤 맥락에서는 고마워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질문하신 내용 중 건축의 담론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와 유리된 건축계 내부만의 담론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문화화 되지 못하는 건축 자체만을 위한 담론보다는 사회에서 부딪치는 실질적인 작업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결국 건축가가 겸허한 자세로 사회에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역할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좋은 건물의 이야기 거리가 참된 담론이지 않을까요?

**김봉렬** 그런 상황을 뚫고서 뭔가를 해보시려고 할 때 어떤 무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유태용** 열심히 일 하는 수밖에 없죠, 아까도 말했지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작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봉렬**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독특한 캐릭터를 지니신 소장님께서 개인적인 차원을 벗어나 건축계에 대해서 발언도 하시고 지도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